

‘철로 도둑’ 때문에 열차 탈선

태국에서 최근 발생한 여객열차 탈선이 ‘철로 도둑’ 때문으로 드러났다고 일간 방콕 포스트가 21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19일 정오 즈음 툰부리와 촌폰주 량수안역 사이를 운행하는 255호 여객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상자는 없었다. 그러나 객차 6량을 달고 운행하던 255호 열차가 철로를 벗어나 비스듬히 기울어지면서 방콕과 남부 지역을 잇는 열차들의 운행이 자정까지 12시간 가량 차질을 빚었다.

태국철도공사 조사 결과, 탈선 사고는 철로를 열차에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나사못이 무려 168개나 사라지고, 철도부설용 강판인 베이스 플레이트 40개도 없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산통 시작 임신부에 “내려라”

베트남에서 한 렌터카 운전기사가 차에서 산통을 시작한 임신부를 길에 내려놓고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조산(임신 37주 이전 출산)한 임신부의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목숨을 잃었다.

21일 일간 뚜오이찌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5시께(현지시간) 베트남 남부 빈쯔엥성에 사는 Y(33)씨는 임신한 지 7개월 만에 출산 조짐을 보였다.

Y씨 일행은 곧바로 40km가량 떨어진 병원으로 향했다.

5km가량 달렸을 때쯤 Y씨의 산통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자 운전기사는 Y씨 일행에게 차에서 내리도록 한 뒤 길바닥에 담요를 깔아주고는 곧바로 떠났다.

이 때문에 Y씨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야외에서 출산해야 했고, 태어난 아이는 곧 숨졌다고 가족들이 전했다. /연합뉴스

자동차 배기가스 황반변성 위험 ↑

자동차 배기가스 노출이 잦으면 노인 실명 원인 1위인 노인성 황반변성(AMD)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만 타이중 통(童) 종합병원의 장광시 교수 연구팀이 중소 도시 거주자 3만9,819명(50세 이상)의 11년간 건강보험 자료와 거주지의 공기 오염 조사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20일 보도했다.

조사 기간에 이 중 1,442명이 AMD 진단을 받았다. 이 결과는 조사 대상자의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저 질환 등 다른 변수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 결과는 그러나 자동차 배기가스 노출이 AMD의 원인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연합뉴스

미 추가관세 부메랑... “가구당 연 120만원 부담”

JP모건 ‘중 소비재 타격’ ... “즉각적 소비위축 역풍” 글로벌 경기 악재 ... “대선표심 우려에 철회할 수도”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경제의 한 축인 가계지출이 억눌리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는 미국이 중국 제품에 다음달 1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미국 내 가구당 연간 1,000 달러(약 120만원)의 추가 비용이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JP모건은 이 관세의 세율이 25%로 올라가면 가구당 부담이 연간 1천 500달러(약 180만원)씩으로 증가할 것

으로 내다봤다. 그간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전쟁 과정에서 중국 제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의 부담이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해왔다.

특히 이번 추가 관세는 가격변화를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비재로 구성된 까닭에 더욱 주목을 받는다.

고율 관세로 제품 가격이 오르면 가계 소비가 억제돼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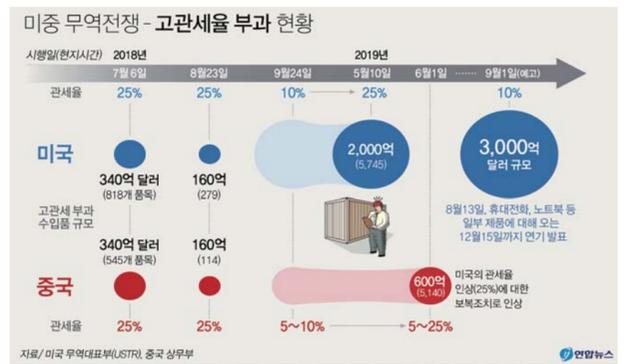
소비자는 미국 경제에서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축이다.

과거 고율 관세 부과 때는 기업이 타격을 받고 공급사슬이 교란됐으나 소비자들은 대체로 보호를 받았다.

미국은 현재 2,500억 달러(약 300조 6,000억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품목 상당 부분이 생산에 들어가는 중간재여서 소비자들의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있다.

JP모건은 “관세는 역진적(돈을 덜 버는 사람의 부담이 더 큰 형국)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재량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덜 쓰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한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이기도 한 미국 소비자들의 동향에 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중국을 겨냥한 추가 관세의 일부 부과 시기를 오는 12월로 연



기하면서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을 고려했다고 말해 관세가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처음으로 시인한 바 있다. JP모건은 대신으로 가는 길에 가계가

타격을 받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 이롭지 않은 까닭에 중국에 대한 이번 추가 관세가 철회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바다로 뛰어내린 난민들 이탈리아 등의 입항 거부로 이탈리아 람페두사 섬 인근 지중해 공해 상에 머물고 있는 스페인 구조단체인 '오픈 암즈' 구조선에서 20일(현지시간) 난민들이 바다로 뛰어내려 헤엄치고 있다. /연합뉴스

미 ‘홍콩 카드’ 압박에 중 반발 격화

트럼프·펜스·폼페이오, 사흘째 시위와 협상 연계 발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부터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미국이 연일 홍콩 시위를 미중 무역협상과 연계할 뜻을 내비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가뜩이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무역협상은 미국이 홍콩 카드를 꺼내 들면서 더욱 꼬이는 양상이다.

미국은 사흘 연속 홍콩을 거론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텐안먼(天安門) 광장과 같은 폭력적인 방법

으로 시위가 끝난다면 무역 협상을 타결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협상이 진전되고 홍콩 시위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도, 이는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서 170만 명이 참가한 시위 후 지난 18일 “그들(중국)이 폭력을 행사하면 (무역)협약이 매우 어려워진다. 그게 또 하나의 텐안먼 광장이 되면 말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홍콩 시위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 중국의 민감한 역

사인 1989년 텐안먼 민주화 시위 무력 진압 사건까지 끄집어내며 경고한 것이다.

범죄자 인도법안 반대에서 시작된 반(反)중국 시위가 11주째 이어진 가운데 홍콩 시위는 무역 협상의 최대 위협요인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중국에 끝내 무력을 행사하면 미국은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인 홍콩 코앞의 광둥성 선전에 무장경찰을 집결시켜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대만에 80억달러어치의 전투기를 팔기로 한 것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새로운 요인이다. 이는 올해 앞서 22억 달러의 무기를 팔기로 한 데 이어 추가 판매다. /연합뉴스

산케이, 한국 항공사 노선 감축에 “일 지방 관광업에 영향”

대한항공 등 한국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 운항을 감축하는 데 대해 “일본의 지방 관광업 등에는 영향도 있을 것 같다”고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21일 전했다.

산케이사는 대한항공이 전일 한일관계 경색에 따른 일본 노선 수요 감소를 고려해 일부 노선의 공급을 조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1면에 실었다.

이 신문은 “한일관계 악화로 한국에선 방일을 회피하는 움직임이 나와 일본 노

선의 수요 감소가 영향을 주는 것 같다”며 “한국 항공사에 일본 노선은 ‘탈러박스’로 불리는데 이번처럼 큰 폭의 재검토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한국에서의 방일 기피 움직임은 자국의 항공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시작하고 있다”며 한국 항공사 8곳의 감축 대상에 포함된 일본 노선이 60개 이상 된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2면에 ‘한국 감편 지방에 영

향’ 제하의 기사에서 “(노선의) 재검토는 한일의 지방 노선 일부로, 대도시를 오가는 비즈니스 승객에 대한 영향은 한정적으로 보이지만 일본의 지방 관광업 등에는 영향도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산케이사는 대형 여행사 JTB를 인용해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예약 상황은 이달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0% 감소했고 9월에는 50% 감소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공기청정기 전문 대표기업 DK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미세먼지는 물론, 탈취까지 환경에 맞춰 진화한다



mini air

공기청정기와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로!



스탠드형 공기청정기

플라즈마 더블케어로 한번 더!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형, 중형, 대형 공기청정기 제조 및 A/S | 문의 1544-1154 | www.e-dk.co.kr